▣ 2007. 7. 8. 서울시 9급 ▣

1. 다음 중 한자 독음으로 맞는 것은?

嗅覺 杳然 恥辱 痛歎

- ① 취각, 답연, 치옥, 통한
- ② 후각, 묘연, 치옥, 통탄
- ③ 취각, 답연, 후옥, 통한
- ④ 후각, 묘연, 굴옥, 통탄
- ⑤ 취각, 묘연, 굴옥, 통한

정답] ①

해설] 嗅覺[냄새맡을 후, 깨달을 각], 杳然[아득히 멀 묘, 그러할 연], 恥辱[부끄러울 치, 욕될 욕], 痛嘆[아플 통, 탄식할 탄]

2. 아래 시의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江碧鳥逾白 크루미 푸르니 새 더욱 ㉠회오,
 山青花欲然 되히 퍼러흐니 꽃 비치 불 붉는 듯도다.
 今春看又過 윤보미 본던 쏘 디나가느니
 何日是歸年 어느 누리 이 도라갈 ㉡회오.

- ① 두보의 시를 번역한 것이다.
- ② 주된 정서는 애상(哀傷)이다.
- ③ 제재는 봄 경치다.
- ④ 주제는 자연의 아름다움 예찬이다.
- ⑤ 지문의 밑줄 뜻이 ㉠'회고' ㉡'해인가'

정답] ④

해설] 두보의 시 '절구(絶句)'로, 늦봄의 정경을 바라보며 '고향에 대한 그리움[수구초심(首丘初心)]'을 노래한 작품으로, 고향에 가고자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애상(哀傷)적 정서를 바탕으로 표현하고 있다.

3. 다음 중 단어의 표기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길을 걷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혔다.
- ② 넉넉치 않은 가정 형편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다.
- ③ 우산을 받쳐 들고 길을 갔다.
- ④ 어머니의 속을 씩이고 말았다.
- ⑤ 술을 체에 받치고 있다.

정답] ②

해설] 한글맞춤법 제40항 : 어간의 끝 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예] 간편하게>간편케, 연구하도록>연구토록

[붙임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생각하지>생각지, 넉넉하지>넉넉지

4. 다음 중 맞춤법으로 맞는 것은?

내 친구는 유년 시절에 아버지를 ㉠여우고 아주 힘들게 대학 생활을 했다. 온갖 ㉡허드레일을 마다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비를 마련하는가 하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힘들어도 ㉢오뚝이처럼 일어섰다. 그런데 막상 졸업을 하자 ㉣들든대로 취직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의기소침해 있는 그 친구의 몹시 마음이 몹시 안타깝다. 그 친구가 당당히 취업통지서를 들고 내게 달려와 축하주 한 잔 사 주는 게 나의 간절한 ㉤바램이다.

- ① 여우고
- ② 허드레일
- ③ 오뚝이
- ④ 들든
- ⑤ 바램

정답] ③

해설] ① 여위다 : 살이 빠져 수척해지다, 여의다 : 사별(死別)하다.
 ② 허드렛일 : 'ㅣ'모음 앞에서 'ㄴ'소리가 덧나면 사잇소리를 표기한다.
 ④ -던 : 과거 회상, -든 : 이것 저것 가리지 않음
 ⑤ 바람 : 소망(所望), 바램 : 색깔이 변함

5.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의 로마자 표기로 올바른 것은?

- ① Myeognyun-dong, Jongno-gu, Seoul
- ② Myeognyun Dong, Jongno-gu, Seoul
- ③ Myeogryun-dong, Jongro-gu, Seoul
- ④ Myeogryun Dong, Jongro-gu, Seoul
- ⑤ Myeognyun-dong, Jongno-gu, Seoul

정답] ①

해설] 로마자 표기는 '소리대로 적는 것[전음법]'을 기준으로 한다. 예) 명륜동>명륜동, 종로구>종노구 · 행정 구역 단위는 '-' 뒤에 'do, si, gun, gu, eup, myeon, ri, dong, ga, gil'로 표기한다.

6. 다음 정철의 시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재 너머 성권릉 집의 술 닉닷 말 어제 두고
 누은 쇼 발로 박초 언치 노아 지즐 타고,
 아히야 네 권릉 거시냐, 명 좌수 왔다 후여라.

- ① '지즐 타고'는 '놀러 탄다'는 뜻이다.
- ② '언치'는 안장 밑에 까는 담요를 뜻한다.
- ③ 전원의 향취가 시 전체에 무르익어 있다.
- ④ 술과 멋을 좋아하는 작가의 품성이 잘 제시되어 있다.
- ⑤ 세련되고 우아한 시어를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정답] ⑤

해설] 일상적 언어를 사용하고, 직설적 화법을 통해 풍류를 즐기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7. 다음 중 발음으로 맞게 표기 된 것은?

- ① 소년의 미소가 밝고[발꼬] 귀여웠다.
- ② 바야흐로 봉동산에 꽃이[꼬시] 만개하고 있다.
- ③ 발을[바출] 가는 황소의 몸이 무거워 보인다.
- ④ 한 시간 동안 벌을 서고 나니 무릎이[무르비] 저렸다.
- ⑤ 허수아비가 들녘에서[들려게서] 참새를 쫓고 있다.

정답] ①

해설] ‘ㄹ’은 ‘ㄱ’으로 발음한다. 다만 ‘ㄱ’어미 앞에서는 ‘ㄹ’로 발음한다. 예) 워다[익따], 워고[일꼬]
·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어미, 접사가 붙으면 받침은 원음대로 발음한다.

- ② 꼬치 ③ 바를 ④ 무르피 ⑤ 들려게서

8. 다음 중 남녀간의 사랑을 읊은 고려가요가 아닌 것은?

- ① 서경별곡 ② 이상곡 ③ 쌍화점
- ④ 만전춘 ⑤ 유구곡

정답] ①

해설] ① 이별의 정한 ②③④ 남녀상열지사
⑤ 비둘기와 빠꾸기를 소재로, 임금에게 직언(直言)을 하지 않는 신하의 모습을 풍자한 작품

9. 다음 중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효석 : ‘돈’, ‘산’, ‘메밀꽃 필 무렵’ 등을 통해 서정성 높은 소설 세계를 표현하였다.
- ② 김유정 : ‘금 따는 콩밭’, ‘땡벌’, ‘봄봄’ 등을 통해 식민지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을 비판적으로 나타내었다.
- ③ 김동리 : ‘무녀도’, ‘바위’, ‘황토기’ 등을 통해, 무속 신앙에 내재된 한국인의 사상적 기저를 탐구하였다.
- ④ 김정환 : ‘사하촌’, ‘모래톱 이야기’, ‘수라도’ 등을 창작하여, 일제 하 농어촌민들의 애환을 표현하였다.
- ⑤ 계용목 : ‘백치 아다다’, ‘병풍에 그린 닭이’, ‘마부’ 등을 통해 인도주의적 경향을 드러내었다.

정답] ②

해설] 김유정은 토속적 배경을 바탕으로, 순박한 사람들의 삶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작가이다. 식민지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을 비판적으로 나타낸 작가는 ‘염상섭’이다.

10. 다음 중 속담 - 사자성어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티끌 모아 태산 - 積土成山
- ②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 貧則多事
- ③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甘香苦吐
- ④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 - 艱難辛苦
- ⑤ 가는 말에 채찍질한다. - 走馬加鞭

정답] ④

해설] 간난신고(艱難辛苦)는 아주 힘들고 고생스러움

11. 보기에 나타난 비평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이 시는 현세적 삶을 살아가는 젊고 어여쁜 여성의 번뇌 위에 종교적 지향성을 포괄으로써 번뇌의 종교적 극복과 지향이라는 주제를 밀도 있게 제시하려는 시인의 내면이 또렷이 드러나 있다.

- ① 반영론 ② 표현론 ③ 효용론
- ④ 객관론 ⑤ 형태론

정답] ②

해설] 작품을 작가의 내면이 표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작가 중심의 ‘표현론적 관점’이 드러난 것이다.

12. 내부 이야기와 외부 이야기로 이루어진 통합식 구성형

식을 취하고 있는 소설은?

- ① 액자소설 ② 역사소설 ③ 피카레스크 소설
- ④ 1인칭 소설 ⑤ 대화체 소설

정답] ①

해설] 주제를 드러내는 내부 이야기와 사실성을 획득하기 위한 외부 이야기로 구성된 소설을 액자소설이라 한다. 예) 배따라기, 광화사(김동인), 고향(현진건), 무녀도, 등신불(김동리), 목님이 마을의 개(황순원), 그 여자네 집(박완서) 등
③ 연작 소설로, 큰 제목 아래 작은 독립된 이야기들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소설이다.

13. 다음 소설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한자성어의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매,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하겠느냐?"

- ① ㉠ 허장성세(虛張聲勢) ② ㉡ 교언영색(巧言令色)
- ③ ㉢ 자신만만(自信滿滿) ④ ㉣ 안분지족(安分知足)
- ⑤ ㉤ 수주대토(守株待兔)

정답] ⑤

해설] 수주대토(守株待兔) : 나무 그루터기를 지키고 앉아 토끼가 와서 부딪쳐 죽기를 기다린다는 말로, 어리석고 융성이 없음, 또는 노력이 없이 좋은 결과만을 기대함

14. 다음 글에서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舊時代(구시대)의 遺物(유물)인 侵略主義(침략주의), 強權主義(강권주의)의 犧牲(희생)을 作(작)하여 有史以來(유사이래) 累千年(누천년)에 처음으로 異民族(이민족) 箝制(겸제)의 痛苦(통고)를 嘗(상)한 지 今(금)에 十年(십년)을 過(과)한지라. 我(아) 生存權(생존권)의 剝喪(박상)됨이 무릇 幾何(기하)이며, 心靈上(심령상) 發展(발전)의 障礙(장애)됨이 무릇 幾何(기하)이며,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의 毀損(훼손)됨이 무릇 幾何(기하)이며, 新銳(신예)와 獨創(독창)으로써 世界文化(세계문화)의 大潮流(대조류)에 寄與補裨(기여보비)할 機緣(기연)을 遺失(유실)함이 무릇 幾何(기하)이뇨.

- ① 구시대의 유물 ② 이민족 겸제의 통고
- ③ 생존권의 박상 ④ 민족적 존영의 훼손
- ⑤ 기연을 유실함

정답] ②

해설] 이 글은 일제의 식민 지배로 인한 우리 민족의 피해를 나열하고 있다. ③④⑤는 ②의 구체적 진술들이다.

15. 표기법이 바른 것은?

- ① 금새 짜증이 났다.
- ② 그의 행동이 어의없다.
- ③ 이 점을 염두해 두고 행동하십시오.
- ④ 간이 안 맞으니 소금을 한 움큼 넣으시오.
- ⑤ 그 사람 표정이 정말 희안하다.

정답] ④

해설] ① 금시(今時)에>금세 ② 어이없다 ③ 염두에 ⑤ 희한(稀罕)하다

16. 김남조의 '설일(雪日)'에 대한 감상 중 틀린 것은?

새해의 눈시울이
순수의 얼음꽃,
승천한 눈물들이 다시 땅 위에 떨어지는
백설을 담고 온다.

- ① '백설'은 눈물의 결정체이다.
- ② '순수의 얼음꽃'과 '백설'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③ '새해'라는 추상어를 구체어로 형상화했다.
- ④ 새해를 맞는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 ⑤ 새해의 눈시울과 승천한 눈물은 대구를 이루고 있다.

정답] ③

해설] ③에서는 언뜻 보기에는 '새해'를 '눈시울'로 표현하여 추상어를 구체어로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눈시울'은 '새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새해를 맞이하며 바깥의 정경을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눈[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새해 아침을 맞이하는

시적 화자의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눈시울'이 '새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③은 틀린 설명이 된다. ⑤번의 경우, 시적 화자의 눈(시울)에서는 화자의 정화된 순수한 마음이 눈물로 화(化)하여 하늘에 이르고, 이는 눈(순수의 얼음꽃)이 되어 지상으로 내리고 있는 것이므로, 대구(더 정확하게는 대응)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 이는 논란이 많은 부분이므로, 저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17.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하나는?

- ① 여닫다 ② 드높다 ③ 낮추다
- ④ 휘감다 ⑤ 사랑스럽다

정답] ①

해설] ① 열[동사 어간]+닫다[동사] : 합성동사
② 드-[접두사]+높다[형용사] : 파생어
③ 낮[형용사 어근]+-추-[사동접미사] : 파생어
④ 휘-[접두사]+감다[동사] : 파생어
⑤ 사랑[명사]+-스럽-[접미사] : 파생어

18. 다음 중 띄어쓰기가 틀린 것은?

- ① 아이들은 어떤 고난도 참아 냈다.
- ② 다음에서 틀린 것을 찾아 보아라.
- ③ 새로 알게 된 사항을 수첩에 적어 놓았다.
- ④ 오늘 목격한 장면을 꼭 기억해 두었다가 본 대로 말해 주길 부탁한다.
- ⑤ 아이들이 떠들어 대고 있다.

정답] ②

해설] '찾아보다'는 한 단어로 붙여 쓴다.

19. () 안에 각각 들어갈 한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현대 국어의 어휘 사용에 큰 ()를 차지한다.
② 여러 가지 새로운 기구의 신설과 ()
③ 원 뜻을 살려서 ()를 만들어 쓰는 것도 신어 증가의 한 요인이다.

- ① 比重, 開閉, 意譯語 ② 比重, 改廢, 意譯語
- ③ 批重, 改廢, 疑驛語 ④ 批重, 開閉, 義譯語
- ⑤ 秘重, 開閉, 義譯語

정답] ②

해설] ② 比重[견줄 비, 무거운 중], 改廢[고칠 개, 폐할 폐], 意譯語[뜻 의, 통변할 역, 말씀 어]
① 開閉[열 개, 닫을 폐] ③ 批[칠 비], 疑[의심할 의], ④ 義[옳을 의] ⑤ 秘[숨길 비]

20. 다음 단어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 ① 살갱이 ② 장사치 ③ 수강아지
- ④ 어질머리 ⑤ 시러베아들

정답] ④

해설] '어질병'이 표준어이다.

⑤ 시러베아들 : '실없는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